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경 축</b> <b>재외동포청 개청</b>
		배포일자	2023년 6월 13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당자	• 글로벌기획팀장 김윤희 ☎440-3401 • 담당자 이소윤 ☎458-723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위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 발족</b> - 중학생부터 청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능통한 50여명 선발 - - 인천유치 응원 및 지지영상 통해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유치 분위기 조성 기대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스는 인천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위한 응원 및 지지 영상 제작·업로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모집해 사회관계망(SNS) 우수 인재로 최종 선발된 50여명의 서포터스들은 최연소인 중학생부터 청년 서포터스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서포터스들의 활동은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내외 관심도를 높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인천으로 유치

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포터스 대표단(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축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서포터스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인천으로 유치돼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기념 촬영도 함께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1000만 도시 인천에서, 인천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사회관계망(SNS) 홍보활동이 기대된다”며, “인천시도 초일류도시의 젊은이를 위해 반드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인천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